

正(東)方(綴)

()
昭和

政第 26A7 号
昭和49年5月28 日

外務大臣 殿

在 大 韓 民 國 後 宮 大 使

(件名)

韓国原爆被害者援護協会の要望書

引用公・電信
日付・番号

5月1日、韓国原爆被害者援護協会

総務 徐佑錫 が来館し、手交し、

別添の要望書を、5月3日の日韓議員

懇親会に出席打、日本の国会議員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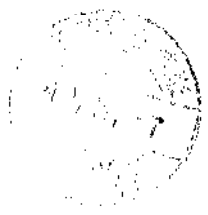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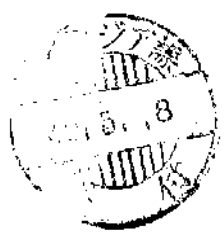
付属添付 付属空便(行) 付属空便(DP) 付属船便(貨) 付属船便(郵)

本信送付先:

本信写送付先:

省内写配布希望先:

1072



照得打于定心加旨 证明 越在 9 2 芬芬 扣
同 照 照 书 也 造 以 申 1 书 子。

要 望 書

서울特別市中區仁峴洞2街73의1

豐田商街3層가列358號

社團 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
法人

電話 (26) 4023

1. 韓國原爆被害者의 實情

我々等は 日本軍國主義가 挑發한 太平洋戰爭 末期에 日本國 廣島市와 長崎市에 聯合軍이 投下한 原子爆彈으로 人類歷史上 最大の 慘酷史를 比喩하게 하여

其當時 우리 同胞의 全殺의 徵用 徵兵 挺身隊等의 名目으로 強制로 動員 日本 侵略戰爭의 道具로 酷使를 當하다 原子爆彈에 被爆되어 無辜한 우리 同胞가 無慮 10萬名에 가까운 人員이 被爆을 當하여

異域萬里 他國 땅에서 故國의 父母兄弟 妻子를 목매어 부르짖다 無慘히 죽어간 同胞가 李鍋公을 비롯 5, 6萬名에 達하고 其 生地獄에서 千辛萬苦로 살아 남은 者中 一部는 日本에 머물러 있고 全般이 祖國으로 還國하여 不具가 된 病身의 몸과 原爆後遺症으로 經年 歲月을 病苦에 呻吟하다 病治療에 家産을 蕩盡하고 病에 시달리다 지쳐 社會를 咀咒 怨望하며 억울하게 숨져간 怨靈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懷慘한 苦難 속에서도 살아 남아 있는 被爆者가 現在 韓國에 約 2萬名 可量으로 推算되며 本協會에 登錄된 人員이 9,362名이 되고 이 被害者數는 日本全體被爆者의 約 一割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韓國被爆者는 日本軍國主義 侵略戰爭에 強制로 끌려가서 戰爭遂行道具로 酷使되다가 慘禍를 當한 二重, 三重의 被害를 입은 억울한 被害者입니다.

그리고 只今 生存해 있는 被爆者들도 이 瞬間 이 時刻에도 千

秋의 恨을 품고 世上을 恨嘆하며 억울하게 쓰러져가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억울한 痛憤할 일입니까?

2. 原爆被爆者의 特異性

그리고 原爆後遺症은 外傷이 없이 걸음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늘 疲勞하기 쉽고 모든 病에 걸리기 쉬우며 一般病에 걸리면 잘 낫지를 않고 特히 白血病, 癌等, 難治病에 걸리는 率이 一般사람보다 越等히 높습니다.

最近 動物實驗 結果 後孫에 對한 遺傳도 인정되어서 原爆被害者는 活動力이 없고 自身과 後孫에 對한 不安感으로 恒常 恐怖에 陥고 있습니다.

우리 韓國內에서도 核의 實驗取扱者들이 손이 적어가고 눈이失明을 한 實證의 例가 있습니다.

이러한 然由로 韓國原爆被害者中 約八, 九割은 病痛과 飢困의 惡循環으로 悲慘한 죽엄만을 期待리는 生活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形便입니다.

3. 日本被爆者의 現況

그러나 加害國인 日本에 있어서는 原爆被害者들의 이러한 特異性을 國家에서 法的으로 認定하고 年間 150 億圓以上の 國家豫算으로 被爆者의 健康管理를 政府가 하고 있으며 原爆病院 療養所 養老院等 各種醫療施設과 生計支援을 하고 있음에도 고래도 이것으로서는 救護가 不足하다 하여 被爆者援護法(國家補償)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日本은 自己네들 自身이 挑發한 侵略戰爭 때문에 입은 被害임의
로 어느 程度의 諒念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其當時 나라 없
는 百姓으로 強制로 끌려가 戰爭의 道具로 酷使中 慘酷한 죽음과
被害를 입었으니 日本政府로서는 自己네 國民보다 몇 倍, 몇 十 倍
의 被害補償과 救護를 해주어야 할 責任이 있고 人類道義上 마땅
히 責任을 져야함에도 이제와선 韓日會談時 請求權協定을 口實로
코든 責任이 清算되었다고 내세우는 日本政府의 破廉恥한 天人共怒
할 非人道的 處事가 있을 수 있읍니까.

韓日會談時 우리 被爆者에 對한 補償 및 救護對策에 對히 一言
半句도 言及조차 않고 舉論, 論議, 協議조차 안된 問題를 韓日請求
權協定으로 被害補償請求權利가 消滅되었다고 千不啻 萬千當한 論法
을 내세우며 本척만척 험신작 내뱉리듯 하며 責任이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憤激痛嘆할 일입니까.

그리고 日本政府는 우리에 對한 補償責任을 整理할 때까지 政府
對政府間의 節次上, 時日의 所要된다면 于先 現今 自己네 日本被爆
者에게 施行하고 있는 原爆醫療法 同措置法에 依한 國家豫算 150
億圓(今年一年間)中 全日本被爆者數의 一割以上을 占하고 있는
우리 被爆者에게 豫算額의 一割인 15億은 勿論 施行初부터 今日까지
漣及하여 支給해 주어야 마땅하며 우리는 마땅히 支給해야 하지
않읍니까.

그러나 日本政府는 28년이 지나도록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돈 한
圓의 補償커녕 救護조차 없었으며 救護策에 對한 公式的인 言及조
차 一言半句도 없읍니다.
왜! 우리 國民이! 우리 民族이 이렇게도 억울하게 蔑視를 당

하고 無視를 當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政府 當局은 日本 政府에 補償請求와 救護對策을 徹底히 強力한 要求를 해주시기 懇切히 要望합니다.

4. 日本民間社會의 關心

이러한 厄을 實情에 對해 韓日 各 매스컴은 是으로 보다 못해 義憤에 넘쳐 앞장서서 PR을 해주고 國內 外의 輿論을 喚起 시키었고 本協會서도 1970年부터 每年 協會代表가 訪日하여 韓國 被爆者의 實情을 日本 各界에 呼訴 嘆願하면서 日本國民의 關心이 漸高되어 日本의 個人 또는 社會團體等에서 過去 罪責感을 못 이겨 訪韓被爆者慰問, 醫師團派遣, 患者無料招致治療等 若干의 民間의 慈善的 後援을 하고 있으며 日本全國에서 韓國原爆被害者를 救護해야 되겠다는 輿論이 沸騰하고 있으며 또 一部團體에서는 本協會가 日本 田中首相에게 提出한 要望書를 支援 百萬人을 目標로 署名運動을 推進하며 하고 있으며 日本 各地(東京, 大阪, 京都, 名古屋, 廣島, 德山, 神戶, 長崎, 福岡等)에는 本協會를 支援하는 團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民間의 慈善을 意味하는 微弱한 救護運動으로는 到底히 根本的인 解決은 遠望無望하며 結局 政府의 政治的인 措置만이 切實히 懇望되는 바입니다.

5. 日本 地方法院의 判示

지난 1974年 3月 30日 日本 福岡地方裁判所는 日本 政府에 對해서 自身의 原爆被害에 對한 治療를 要求하는 福岡縣을 相對로 訴

訟을 提起한 韓國人 孫振斗氏에게 勝訴를 判決하였으며 福岡地方裁
 判所는 「原爆醫療法 立法趣旨와 法條文이 直接 間接으로 그 權利
 主體를 日本社會의 構成員에 局限시키지 않고 있어 原爆被害者라면
 그가 外國人일지라도 現在 日本國內에 있는 것만으로써 이 法의
 適用을 받는 것이다.」라고 判示하고 따라서 日本에 觀光目的으로
 一時入國한 外國人이나 不法入國者等에 對해서도 原爆被害者라면 原
 爆醫療法의 適用을 받는다.」라고 判하고 있고.

6. 日本政府의 關心

그리하여 本協會는 數年間 日本政府와 駐韓日本大使에게 우리의
 救護를 要請하였으나 番番히 黙殺되어 오던中

㉠ 1972年 8月 30日 本協會代表가 日本 三木副總理를 訪問 田中
 首相에게 要望書를 傳達하고 善處를 要望하였든바 至極히 好意的
 으로 對하면서 善處를 約束받았으며

㉡ 또 1972年 10月 8日에는 本協會를 支援하는 市民會會長(本吉
 義宏氏)이 日本 大平外相을 訪問하고 前 要望書와 市民會가 日
 本人 立場에서 “韓國被爆者는 政府가 救護해 주어야 한다.”는
 要望書를 같이 傳達하였든바 同席上에서 大平外相은 韓國人被爆者
 에게 對한 關心을 表明 政府로 하여금 立法措置하겠다고 公言하
 였으며

㉢ 駐韓後宮日本大使도 韓國被爆者에 對해 깊은 關心을 가지고 大
 使館 書記官 手島氏를 本件에 對한 擔當者로 指名하고 1972年
 9月 5日 韓日閣僚會議時 非公式席上에서 本件에 對해 日本閣僚에
 게 進言한바 있습니다.

府의 意圖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方法으로서 (예컨대 大使에게서 外相이나 次官에게) 口頭로 하는 方法도 無妨하겠는가고 問議하였든바 앤도오次席은 口頭要請이라도 좋다는 答이 있었음.

前、마: 本件에 關한 政府方針을 至急 下示 바람. 以上과 같이 日本 外務省의 公式發議가 28年만에 처음 있었으나 其後 近一年이 지난 至今까지 아무런 計劃과 施行의 證左가 없으니 五里霧中이 되지 않을까 憂慮되는바입니다.

특히 日本政府가 내세우는 被害補償權利가 韓日請求權協定으로 消滅되었다는 主張은 前述한 바와 같이 있을 수 없는 言語道斷이며 이는 日本政府가 過去의 罪科를 隱蔽抹殺하려는 政治的 迴避用語에 지나지 않습니다.

以上 日本의 政府나 民間, 그리고 各政黨, 社會團體들도 右에서 左에 이르기까지 모든 團體가 韓國被爆者 救援問題에 對해서 마는 反對하는 點이 없이 極히 協助的이며 援護하여 주려는 用意가 되어 있는 實情입니다.

7. 우리 政府의 立場

以上과 같이 日本側에 比하여 우리 國內의 모든 機關이나 社會 實情은 至極히 冷靜하고 理解가 없습니다.

첫째 日本에서 法的으로 認定받고 있는 被爆者의 健康上의 特殊性을 우리 醫學界는 勿論 一般社會가 理解를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建國途上에 6.25의 動亂으로 廢墟化되었는 國家를 再建途上에 있음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며 특히 保社

인 被害補償과 救護對策이 妥決되도록 아래와 같이 要望을 드리오
니 極力 協力 주시길 懇切히 仰願하옵니다.

要 望 事 項

우리 政府에 對한 要望事項

前述한바와 같이 우리 被爆者의 莫大하고 慘酷한 實情을 깊이깊이
通察하시어 아래 要望事項을 日本政府에 強力히 要求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外務部로 하여금 韓日會談에서 擧論된바 없는 原爆被害者의 對한
被害補償을 日本政府에 強力히 要求하여 被害補償을 받도록 (爆死者
包含) 處決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被害補償이 實現될 때까지 日本被爆者와 差別없는 救護對策을 實
施해 줄 것을 日本政府에 要求합니다.
3. 國會로 하여금 原爆醫療法 및 同措置法과 援護法을 立法化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全國被爆者에 對한 實態調査를 徹底히 實施하여 實態를 把握하여
모든 對策을 施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全國被爆者 및 遺族과 二世를 위한 自活福祉센터를 建立을 要望
합니다.

以上과 같이 全國被爆者를 代表하여 要望하오나 格別히 配慮하시어
打開策을 講究하시어 貫徹되도록 處決하여 주심을 懇切히 仰願하
옵니다.

1974年 5月 日

全國原爆被害者一同

서울特別市中區仁峴洞2街73의 /

豐田商街3層(가列358)

社團 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
法人

電話 (26) 4023

代表會長 趙 判 石